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49 교무금: \$ 70 생미사 봉헌: \$ 40 ----- 합계 : \$ 259 봉헌봉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다음주 봉헌봉사: 윤지희 데레사
다음주 미사 독서: 이승환 안드레아, 조은영 베다		
금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금주 미사 해설: 김지원 카린		
다음 주 미사 해설: 권민호 바오로		
반	주: 조은영 베다, 강동현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3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6 월 14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6 월 7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적인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짧은 시간만을 배부르게 하지만, 영적인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십자가상에 바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시어 이를 항상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산삼을 먹을 때에는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먹기 전에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짜거나 매운 음식, 술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산삼을 먹을 때에도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로 씻어야 하고, 먹은 뒤에도 여러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성이 있어야 산삼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에 최고라는 산삼을 먹을 때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어떠한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참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성체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지, 그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외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유편미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클럽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2013년 6월 01 일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제 1 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화답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뿜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부속가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와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 ㄴ-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201 봉헌: 221 성체: 178 파견: 200		



사랑의 빵, 생명의 양식

저는 몇년 전, 수도권의 어느 보육원에서 안식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몇이부터 유치원생까지 1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있는데, 수녀님들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식과 옷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원장 수녀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린 아이 들에게는 부모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주 아파요. 그게 안쓰러워서 더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다고 부족한 사랑이 다 채워지겠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사랑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주지만, 안 그러면 어렵도 없다.’는 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루카 23,34 참조), 또한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목자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요한 21,15-19 참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을 주시고자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육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빵에, 영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당신 사랑을 담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통해 이런 뜻을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먹었던 빵은 “생명을 주는 빵”(요한 6,33)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후 만찬 중에 성체성사를 세우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 코린 11,24) 현대에는 육신의 굶주림 못지않게 영혼의 굶주림도 큰 문제입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먹고 또 먹어서 비만에 걸리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허기를 달래려고 불량식품과 같은 유사영성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세상에 전포해야 할 사명이 큼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과 삶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말을 믿겠습니까?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공지사항

1. 성체성혈대축일 교황님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2013년 6월 2일(주일) 오후 5시(로마시간)부터 1시간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온 세계가 함께 드리는 장엄 성체조배가 거행됩니다. 매디슨 각 본당에서도 성체조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세계 모든 성당들에서 비슷한 시간대로 성체조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정상 성체조배를 따로 행하기가 어렵기에 인근 성당에서 행해지는 성체조배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St.Paul 성당에서는 성체 조배가 없으니 인근 성당의 성체조배식에 참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 Cathedral Parish of St. Raphael (Near the Capitol, 404 East Main Street, Madison):

시간: 일요일, 10:00 am to 11:00 am,

Eucharistic Procession to the Capitol steps after the 11:00 mass.

- St. Maria Goretti Parish (Near the Home Depot at Verona Rd., 5313 Flad Ave, Madison):

시간: 일요일 1:00 pm -2:00 pm.

- Our Lady Queen of Peace Parish (Midvale and Mineral Point, 401 S Owen Dr, Madison):

시간: 일요일 12:15 pm - 1:15 pm.

이외에도 매디슨 내 총 10개 성당에서 성체조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체조배를 거행하는 성당의 위치와 시간은 우리 공동체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의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성체조배 기도 지향:

1.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2. 종살이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전쟁과 인신 매매, 마약 밀매, 강제 노동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2. 견진 성사 안내

일시: 2013년 7월 20일 (토) 5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세례 성사 이후 견진 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올해의 견진 성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진 성사 대상자는 추후 공지될 예정인 견진 성사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자 교리교육 안내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교리반의 세례식은 오는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녀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마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